의혹 못 푼 한갑수 前이사장 기자회견

선임권 일임·외압설 어정쩡 해명

"신정아 선택 어쩔 수 없었다" 되풀이만

한갑수 전 광주비엔날레 재단 이사장이 3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신정아(35)씨를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으로 선임한 배경을 둘러싼 외압설을 부인했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을 풀기에는 미흡했다.

한 전 이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씨를 국내 감독으로 선정한 것은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선정소위(위원장·이종상)로부터 넘겨받은 후보 8명을 면접한 후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안일 뿐"이라며 "선정 배후에는 어떤 정치권이나 권력자의 외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이사장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예술감독 선정과 관련된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 게다가 신씨를 감독으로 추천한 핵심 인물인 이종상씨도 예정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아 궁금증을 더했다.

◇신씨 선정 경위 해명 되풀이=한 전 이사장은 신씨가 감독에 내정된 것은 2기 예술감독 선정소위원회(이하 선정소위)에서 추천된 후보 8명 가운데 ▲추천철회 1명 ▲본인고사 3명 ▲1기 예술감독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후보가 됐지만 선정이 보류됐던 2명 ▲일부 이사의 반대 등으로 배제된 1명을 제외하면 신씨 1명만 남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이사장에 따르면 당시 선정소위에서 추천한 후보 8명 가운데 이미 5명은 배제된 상황이었다. 한 전 이사장은 그동안 "최종적으로 남겨진 박만우, 이영철, 신정아씨를 면담, 판단한 결과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신씨 뿐이었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이에 앞서 1차 후보 압축과정에서 배제된 신씨가 선정소위에서 감독선임권을 한 전 이사장에게 일임함으로써 다시 후보로 떠오른 배경이 의문으로 제기됐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충분히 해명되지 못했다.

한 전 이사장은 그동안 "최종 압축된 후보들이 잇따라 고사한데다 감독 선정을 위해 많은 시일을 소비했기 때문에 선정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전권을 나에게 맡겼다"고 주장했으나,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또 선정소위 위원장으로서 한 전 이사장에게 감독 선임권을 위임토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상씨는 이날 예정된 기자회견에 참석치 않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사진 갈등으로 신씨 어부지리?=한 전 이사장은 최종 후보인 박만우, 이영철, 신정아씨를 막판까지 저울질하기 위해 선정소위 위원 11명 가운데 광주 지역 이사 2명을 만나 자문을 구했다.

또 신씨를 추천한 이종상 서울대 명예교수 등 서울 쪽 이사 2명에게도 면담과 전화를 통해 후보들의 자질을 문의했다. 박씨의 경우 후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미 선정소위에서 제기된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이사들은 이영철씨에게 후한 점수를 줬고, 신씨의 경우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하지만 이씨의 경우 서울쪽 이사들과 개인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놓여 반대가 심했다. 이 때문에 결국 한 전 이사장이 양쪽에서 거부감이 덜한 신씨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지역 문화계의 한 인사는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정보가 없는 한 전 이사장이 가장 객관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사들에게 후보 선정 문제를 자문한 것이 신씨 선임을 유도한 것처럼 비쳐진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갑수 전 광주비엔날레 이사장이 3일 오후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정아씨를 감독으로 선임하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아시아대회도 포기했는데…

강원도 동계올림픽 유치 3수 도전 선언

광주시 하계U대회 유치 악영향 우려

강원도가 3일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3번째)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를 추진중인 광주시가 향후 이해득실을 따지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진선 강원지사는 이날 "동계올림픽 재도전 문제에 대한 논란을 조기에 매듭짓는 것은 물론, 2018년 동계올림픽 한국 유치에 대한 국제 역학구도 및 경쟁력 측면에서 좋은 여건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동계올림픽 3수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국내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3수 도전을 선언한 것은 국제스포츠계의 대형 이벤트에 대한 선점 효과를 노린다는 측면에서 전격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강원도의 동계올림픽 3수 재도전은 광주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중인 각종 대형 국제스포츠 행사 유치에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게 됐다.

2013년 동아시아대회 유치를 추진중이었던 광주시는 개최지 결정(지난 5월 예정)을 목전에 둔 지난 3월 동아시아대회 유치를 포기했었다. 강원도 평창의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이 동아시아대회 개최지 결정 직후인 지난 7월 열린다는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국가적 파급효과가 큰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승적으로 양보를 한 것이다.

광주시는 동아시아대회를 포기하는 대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무관한 2013년 하계U대회 유치에 나섰다. 2013년 하계U대회는 내년 5월에 개최지가 결정된다.

결국 광주시로서는 강원도의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동아시아대회를 포기하고 하계U대회로 방향을 선회했으나, 강원도가 또 다시 동계올림픽 유치 3수 도전을 선언함에 따라 대형스포츠 이벤트를 한 나라에 몰아주지 않는 국제 스포츠계의 불문율에 따른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2013년 하계U대회 개최지 결정은 내년 5월이고,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은 앞으로 4년 뒤여서 광주 유치에는 별 다른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전국의 주요 지자체들이 거의 매년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강하다.

국내에서는 부산이 2020년 하계올림픽 도전을 선언하고, 경북이 2010년 처음 개최되는 청소년올림픽 유치전에 뛰어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제주가 2017년 동아시아경기대회 유치를 추진중이다.

한편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재도전을 선언하자 강원도 내 3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강원도의 활동을 인정할 수 없으며 볼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으며, 민주노동당 강원도당도 재도전 선언 철회를 촉구하는 등 3수 도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동국대 조의연 경영관리실장이 3일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예일대 학위 위조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예일대, 신정아씨 학위 확인 요청 공문 접수"

동국대 "美우편공사 영수증 검찰이 확보"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박사학위에 대한 동국대 측의 확인 요청 공문을 예일대가 접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공문이 담당자에게 전달됐는지 아니면 중간에 엉뚱한 곳으로 빼돌려졌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동국대는 3일 오후 이 대학 본관 5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씨 교수 임용 당시인 2005년 9월6일 예일대 대학원에 보낸 신씨 학위 확인에 관한 등기우편이 학교 당국에 수령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의연 동국대 경영관리실장은 "확인 결과 학력조회 요청 문서가 2005년 9월 20일 오후 12시30분께 예일대 우편담당부서(YCM)의 마이클 무어라는 스태프 멤버에 의해 수신됐다"고 말했다.

당초 동국대는 등기우편물 보존기간이 1년이라는 예일대 측의 답변에 따라 이 공문의 이동 경로 추적을 포기했으나 최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미국우편공사(US 포스탈서비스)로부터 확보한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수신처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우편이 YCM을 거쳐 어느 곳으로 전달됐는지, 대학원 학적팀이 이 공문을 제대로 수령했는지 여부는 예일대 측이 아직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는 상태다.

동국대는 YCM의 마이클 무어가 수신자로 돼 있는 우편물 영수증을 예일대에 보내 다시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신정아 전 교수의 '가짜학위'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곧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영산강 하구둑 대체교량 건설 검토

전남도 2008년 신규시책 보고회서 151건 제시

출퇴근시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 목포~영암 삼호간 영산강 하구둑을 대체할 교량 건설이 검토되고 있다. 또 '섬마을 색채 디자인 사업','보완대체의학 프레박람회' 등 전남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이 추진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3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2008년도 신규시책 보고회'를 열어 151건의 신규 시책을 제시하고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본격 검토에 나섰다.

이날 채택된 중요 신규 시책은 '중남부권 산업단지 지원 도로망 확충'과 '영산강 하구둑 대체교량 건설', '정책 아이디어 은행 운영', '영어체험캠프 확대·보완' 등이다. 특히 총 건설비 2천여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영산강 하구둑 대체교량의 경우 전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내년 예산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4억여원이 반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및 조성', '조선 특수기자재 및 해양레저 조선산업 유치', '관광숙박업 체인화', '남도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섬(마을) 색채 디자인 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보완대체의학 프레-박람회 개최', '수산업 구조의 규모·기업화' 등도 채택됐다.

도는 이날 보고된 신규 시책을 검토해 타당성이 높고 효과가 기대되는 우수 시책에 대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도정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